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솔직·대담한 性

관음증도 중독… 치료 피하지 말라

최근 젊은 남성이 창문을 통해 집안에 있는 여성을 엿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붙잡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여학교 주변에서 성기 노출 등의 음란 행위를 하다 붙잡힌 일명 '바바리맨'에 대한 보도, 출퇴근 시간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성추행을 하다 붙잡힌 사건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이고 성도착인 행동을 이상 성행동으로 간주하지만 시대상황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문화적인 차이, 성에 대한 개인차 등에 의해 정상적인 성행동과의 확실한 구분은 쉽지 않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동성애를 질병으로 인식했고 구강성교는 변태적인 행위로 여겼지만 지금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또한 이상 성행동은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남들의 정사 장면을 엿보는 것은 평범한 것이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성적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은 변태적이기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문제가 된다.

이상 성행동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상상이나 성욕 또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어린 아이나 사회적·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대상을 성적파트너로해 성적쾌감을 얻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성적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취향을 위해 성교를 하지 않은 채 그 전 단계의 흥분상태에 집착, 정상적으로 만족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습관적인 행동이다.

이상 성행동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관음증은 이성이나 동성의 나체를 훔쳐보거나 남의 성행위를 봄으로서 성적 흥분을 느끼고 노출증은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지나갈 때 성기를 노출시켜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공포, 불안, 깜짝 놀라는 반응을 통해서만 성적 만족을 얻는 경우다. 성적 가학증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반복적·의도적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물품 음란증은 여성의 속옷, 스타킹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성행위가 감정의 교류 없이 본능적 욕구 해소, 쾌락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해외로의 매춘 관광이다. 재미삼아 한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가는 중독된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각종 성병에 감염되기도 하고 이국에서 성적 자유를 누리며 국내에서 해볼 수 없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행위, 가학적 성행위 등의 다양한 이상 성행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런 이상 성행동은 성적흥분을 유발하지만 중독성이 있어 반복되기 쉽다. 정상적인 성생활은 무덤덤해지고 결혼생활도 엉망이 되며 또한 사회활동에도 문제를 일으켜 소심해지고 무기력해진다. 또 보다 강한 자극을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되며 성적 욕구는 욕구대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 성행동의 원인은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나 부모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또는 사춘기때 성에 대한 편견이나 열등감 등이 병적으로 발전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은 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상 성행동은 증상이 평생 지속되고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인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며 학습효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한 적절한 성교육이 필수적이다. 〈명비뇨기과 원장〉

리빙 센스

과음 후 피부 관리 ②

■얼음물로 패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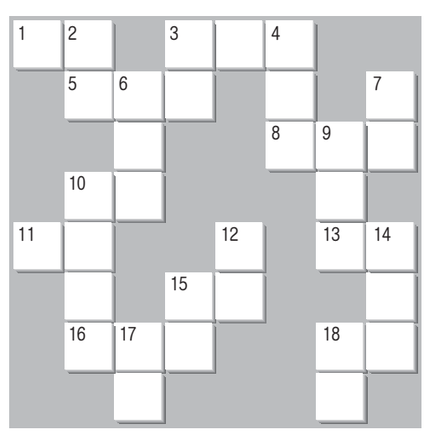
과음을 하면 혈액 순환이 안돼 얼굴이 붓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얼음물로 세안을 마무리해 붓기를 빼도록 한다. 찬물은 피부를 조여주면서 적당한 자극을 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붓기를 빼는데 효과가 좋다.

세안 후 찬물을 얼굴에 뿌려주는 기분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손바닥으로 1분쯤 얼굴을 살살 두드린다. 녹차 티백을 물에 적셔 얼려 두었다가 얼굴을 마사지 해도 붓기를 빼는데 효과적이다.

찬물로 두드려주기가 끝나면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스킨을 화장 솜에 묻혀 피부 결을 따라 두드리듯 바르면 탄력 효과를 줘 푸석한 얼굴에 긴장감을 살려준다.

함께 풀어봅시다 < 317 >



➜ 가로풀이

1.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 군중 ~가 큰 공원에서 열렸다. 3.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했을 때 매긴다. 5.부모를 뵙기 위해 객지에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여객. 서울역은 ~으로 크게 붐볐다. 8.본디 있던 자리를 이르는 말.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을 때 사용되기도 함. 뒤로 취침!. ~! 10.일정한 결론에 도달해 이미 확정하거나 인정한 설. ~로 받아들이다. 11.교묘한 기술과 재주. 곡예단이 공중 ~를 보였다. 13.장사나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돈. 토지, 노동과 함께 생산의 기본 요소 중 하나. 15.밤을 새움. ~ 기도. 16.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서 봉하여 주는 상금, 기부금 등을 이르는 말. 대통령이 ~을 하사하다. 18.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내는 시기나 기한. ~ 안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 세로풀이

2.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과거로의 ~. 3.술에 취한 사람을 이르는 말. 포장마차 안은 ~으로 만원이었다. 4.공항·국경 지대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소지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검사·관세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 6.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나 나쁜 환경이나 물욕(物慾)으로 악하게 된다는 학설. 중국의 맹자가 주장했다. 7.젊은 사람의 검은 머리에 드문드문 섞여서 난 흰 머리카락. 9.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사람. 10.일정 기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예금. 12.밤에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 또는 그런 밤.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지방에서 여름철 일몰과 일출 사이에 박명(薄明) 현상이 계속돼 생긴다. 14.본을 받을 만한 대상. 또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 15.기계 체조에 쓰는 기구. 높이가 2.55미터인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길이가 2.4미터인 쇠 막대를 수평으로 가로지른 것. 17.일정한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의 계획을 날짜별로 짜 놓은 것. 이번 여행 ~은 어떻게 되니? 18.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 줌. 또는 그 물품.

〈함께 풀어봅시다 316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이태임·광주시 북구 운암동
김윤혜·광주시 동구 학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일(음 8월 2일 甲辰)

子 36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48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60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72년생 손재수가 있다. 84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11, 31

丑 37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49년생 선택을 심사숙고하라. 61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73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게 된다. 85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행운의 숫자 : 09, 33

寅 38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50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62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있으니 하루를 조용히 지내라. 74년생 스스로 자파하는 격이요. 행운의 숫자 : 21, 16

卯 39년생 가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51년생 전화위복이니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63년생 애인과 이성교재가 있을 수도. 7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5, 43

辰 40년생 부부사이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52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함이 있어야. 64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6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27

巳 41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3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에 있다. 65년생 확신이 없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77년생 촌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2, 28

午 42년생 충의 불편사가 발생한다. 54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66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78년생 백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04, 35

未 43년생 비정한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5년생 사회활동을 불편하게 할 주변인이 다가 온다. 67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79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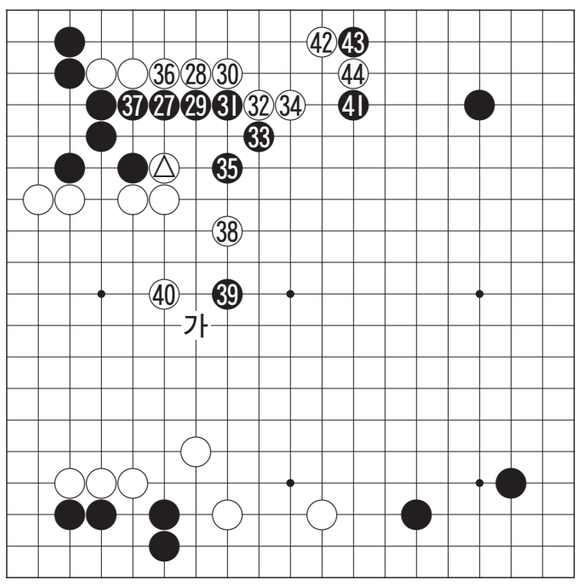
申 44년생 문서 직업으로 인해서 대고역이 중중해서 심신까지 불안하다. 56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8년생 타에 의한 사언과 손재가 우려 된다. 80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08, 41

酉 45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57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숙고하라. 69년생 친구 친척간에 호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81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 14, 42

戌 46년생 헛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58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70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활성되리라. 82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3, 43

亥 47년생 증식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59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71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83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01,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백, 호조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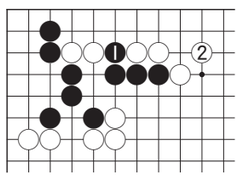
개인전 준결승 2국 3보(27~44)

白 김영수 5단 (전남교사회) 黑 방재혁 5단 (창이유통)

백 Ⓐ로 꼬부린 수가 임기응변의 꼬부림으로 중앙의 두터움을 살리면서 상변 백 두점을 응원하고 있는 좋은 수였다.

이렇게 되자 흑도 좌상귀의 사활이 불확실해 27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데 백 28이 또 좋은 수로 34까지 상변에서도 백이 이득을 조고 있다.

흑 33으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찌르고 백이 받아만 준다면 끊는 수를 노리고 싶으나 이때는 백이 2로 변신하게 되어 실패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흑 33으로 젖혔고 백은 자연스럽게 34로 늘어 백이 호조의 흐름이다.



〈참고도〉

백 38로는 아예 '가' 쯤에 말뚝을 치고 싶은 곳이며 흑 39는 얕아 보이나 이 정도가 적당하다.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위험하다. 흑 41, 43에 백 44로 끼운 수가 좋은 수로 보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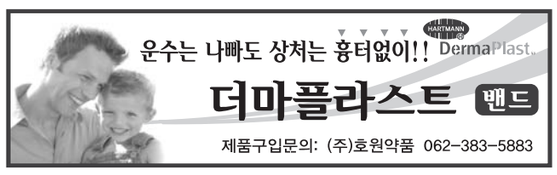
구리·박문요 도요타배 결승행

제4회 도요타배 우승컵은 중국의 구리 9단과 박문요 5단의 대결로 압축됐다. 한국 선수가 모두 탈락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4강전에서 구리와 박문요는 각각 장쉬 9단, 씨에허 7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구리는 올해 후지쯔배에서 이세돌 9단, 창하오 9단, 이창호 9단을 꺾고 생애 세 번째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최상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박문요도 이번에 첫 도요타배에 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 결승전은 내년 1월 6~9일에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회 제한시간은 3시간에 10분 전부터 초읽기를 시작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36>

Are you going to use the phone?

전화 쓰실 거예요?

A : Are you going to use the phone? I need to call John.
B : You can't call John until you finish your chores.
A : Come on, please.
B : No. Do your chores and then you can call him.

A : 전화 쓰실 거예요? 존에게 전화해야 하는데요.
B : 집안일을 모두 마칠 때 까지는 존에게 전화할 수 없어.
A : 제발 봐줘요.
B : 안돼, 먼저 집안일부터 처리해라, 그리고 나서 전화해.

* chore : 집안 일, 허드렛일
*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텔레비전을 봐서는 안돼.
= You can't watch the TV until you finish your studie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36>

年(とし)の差(さ)はあまり感じないね。

나이 차는 그다지 느끼지 않아

A : 最近(さいきん)藝能界(げいのうかい)を見ると, 男性(だんせい)が年下とカップルがずいぶん多いね。
B : そうだね。キムサムスンもそうだし。
A : ところで, 君の奥さんも確(たし)か年上だったよね。
B : うん、一つ年上だけど, 年(とし)の差(さ)はあまり感じないね。

A : 최근의 연예계를 보면 남성이 연하인 커플이 꽤 많군.
B : 그래. 김삼순도 그렇고.
A : 그런데, 자네 부인도 아마 연상이었지?
B : 응. 한 살 많지만, 나이 차는 그다지 느끼지 않아.

カップル : 커플
ずいぶん多(おお)い : 꽤 많다
確(たし)か : 분명히, 아마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13>

今年几岁了?

올해 몇 살이야?

A: 你弟弟今年几岁了?
Nǐ dìdi jīnnián jǐ suì le?
B: 我弟弟今年十岁了。
Wǒ dìdi jīnnián shí suì le.
A: 你妹妹今年几岁了?
Nǐ mèimei jīnnián jǐ suì le?
B: 我妹妹今年九岁了。
Wǒ mèimei jīnnián jiǔ suì le.

A: 네 남동생은 올해 몇 살이야?
B: 내 남동생은 올해 10살이야.
A: 네 여동생은 올해 몇 살이야?
B: 내 여동생은 올해 9살이야.

今年 [jīn nián] 올해, 금년
岁 [suì] 살, 세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53>

小心(소심)

작을 소, 마음 심

소심(小心)은 본래 세심하게 마음을 써서 삼간다는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담력이 없는 것, 즉 소담(小膽)을 형용한다. 이 말은 주(周)나라의 선왕(宣王)을 보좌한 재상 중산보의 덕을 칭찬한 시에서 유래한다. 중산보의 덕은 온순하면서도 절도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 모습을 시에서는 다음처럼 노래한다.

"-전략(前略)- 하늘이 주나라를 돌러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내려오시어 / 이 천자를 보호하시어, 중산보를 낳게 하셨도다 / 중산보의 덕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법도가 있도다 / 훌륭한 거동과 훌륭한 낯빛이며, 마음을 작게 하여(小心) 공경하며 /옛날의 교훈을 잘 본받으며, 위엄있는 거동에 바로 힘쓰며 / 천자가 이와 같이 따르며, 밝은 명령을 펴는도다" (詩經, 大雅, 蒸民)

윗 시는 아름다운 얼굴의 중산보가 마음을 작게 하여 조심하고, 옛날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아, 예절바른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고, 천자도 그에 따라 훌륭한 정치를 세상에 폈다는 내용이다. 이런 '소심'의 본래 의미를 되살리면 거칠은 현대사회가 조금이나마 우아하게 되지 않을까?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